

광주공장 생산 기아차 '셀토스' 베일 벗다

소형 SUV...내달부터 본격 생산
출시 앞서 이달 말 사전계약
인시장 톱5 이끌 전략모델
하반기 론칭...인도서 첫 공개



기아차 소형 SUV '셀토스'가 인도에서 세계 최초 공개됐다. 셀토스 국내 생산은 광주공장에서 맡는다. <기아차 제공>

다음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본격 생산하게 될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셀토스(Seltos)'가 인도에서 베일을 벗는다. 인도 시장 진출을 선언한 기아차가 현지에서 세계 최초 공개한 것이다.

기아차는 20일 인도 뉴델리 인근 구루그립(옛 구르가온) 에이 도트 컨벤션센터에서 '셀토스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아차의 글로벌 전략 모델인 셀토스가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도에서 공개된 셀토스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첫 생산, 다음달 국내에서 달린다. 출시에 앞서 이달 말 사전계약을 받는다. 하반기에는 인도 공장에서도 생산된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셀토스를 세계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인도에서 처음 소개하게 됐다"며

"기아차 글로벌 성장사에 새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1998년 일찌감치 현지에 진출한 현대차와 달리 그동안 인도 시장에 발을 디디지 못했다. 60%에 달하는 높은 관세 때문에 현지 생산 거점 없이 수출만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자 현지 공장 건설을 통해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현재 안드라프라데시주(서) 아난타푸르 지역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인도 시장 공략의 첨병은 셀토스다. 기아차는 올해 하반기 셀토스를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론칭할 계획이며 앞으로 3년

간 6개월마다 신차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이를 토대로 3년 내 인도 시장 톱5 업체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아차 공장이 풀가동되면 기존 현대차 첸나이 공장의 연간 생산량 75만대와 합해 현대기아차는 인도에서만 100만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게 된다. 인도가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전략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셈이다.

인도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로 꼽힌다. 자동차 보급률이 아직 1000명당 35명 수준으로 202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셀토스는 '스피디(Speedy)'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의 아들인 '켈토스(Celtos)'의 합성어로, 당당하고 강인한 소형 SUV를 연상시킨다. 기아차 SUV 라인업에서 초소형 스토닉과 준중형 스포티지 사이에 위치한다. 1.6ℓ 가솔린 터보와 디젤 2종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코나, 쌍용차 티볼리와 정면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31.29 (+6.51)	↓ 금리(국고채 3년) 1.42 (-0.06)
↑ 코스닥 727.32 (+9.61)	↓ 환율(USD) 1162.10 (-14.00)

광주은행 비대면 거래 디지털금융 '가속'

비대면 채널 활성화 공모전 발표회...아이디어 공유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비대면 거래에 대한 고객의 수요 확산과 다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디지털금융 고도화에 발 벗고 나섰다.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은행 본점에서 '비대면 채널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발표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입영 3년차 미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은 3월 참가 접수부터 직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홍보·가입·고객상담'을 주제로 총 22개팀이 출전해 지난 4월 1차 발표에서 12개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공모전 최종 발표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지역은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과 지역민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서 비대면 채널

영역 활성화를 강화할 것이다. 임직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하고, 공모전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최근 비대면 채널 영업 강화의 일환으로 모바일뱅크와 스마트뱅크, 인터넷뱅킹에서 '채팅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금융상담 챗봇 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챗봇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기존에 상담원을 통한 채팅상담이 AI기반의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진행됨으로써 24시간 고객응대가 가능하게 된다. 음성상담 및 이메일 상담 내역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해 챗봇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고객상담을 구현함으로써 디지털금융에 대한 경쟁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식중독 우려 7개 품목 8월까지 판매 중단

롯데백화점·아울렛 여름철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호남충청지역 롯데백화점과 아울렛이 여름철 식품위생·안전관리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 등은 20일 "식품 품질평가사의 점포별 점검 횟수를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려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점포별 위생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식당가, 커피숍 등의 매장 청결 상태, 상품 유통기한, 식기 살균 여부, 식재료 보관 상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7개 품목은 오는 8월까지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현재 연어가 사용되는 초밥, 셀러드, 샌드위치, 회덮밥과 양념계장, 꼬막찜, 단순 렘

포장 된 컷팅 수박은 하절기에 판매가 중단되며 생연어 내다 냉장제품의 경우 7월 한 달 간 판매를 멈춘다. 회덮밥류, 활어회, 초밥류, 김밥, 롤 등은 상온 4시간, 냉장 5시간으로 유통시간을 단축하며 즉석두부, 포장 수산물, 족발, 편육은 당일 판매만 허용한다.

연현도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 식품 품질평가사는 "롯데 중앙연구소 안전센터와 연계해 식품 상태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수시로 요청하고 불시 야간 위생 점검 진행 등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 식품 품질평가사가 20일 광주지역 매장에서 위생검사용 아이스크림을 수거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거실·주방·세탁실에 녹아든 '홈 IoT' 체험하세요 삼성전자 '광주국제 박람회' 전시 부스

삼성전자가 생활공간 곳곳에 스며든 '홈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20일부터 22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9 광주국제 IoT·로봇박람회'에 참가해 삼성 홈 IoT와 AI 관련 체험형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광주시가 주최하는 광주국제 IoT·로봇 박람회는 전 세계 20개국 15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행사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거실과 주방, 세탁실 등 소비자의 일상생활 공간을 구현하고, 패밀리허브 냉장고·무풍에어컨·에어드레서 등 삼성 혁신 가전제품으로 경험 가능한 홈 IoT 서비스들을 다채로운 시나리오로 시연한다.

삼성 홈 IoT는 인텔리전스 플랫폼 '빅스

비'와 '스마트싱스'를 통해 다양한 기기들을 연동해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음성 명령을 내려 스마트 TV 화면을 통해 냉장고 속 식재료를 확인하거나 주방에서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통해 전화 통화를 하고, 스마트 TV나 패밀리허브를 통해 거실과 주방 등에서 세탁실에 위치한 세탁기의 세탁 완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음성 명령 한마디로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기기를 한꺼번에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하이 빅스비, 나 집에 왔어"라고 말하면 집 안 조명과 에어컨·공기청정기가 한 번에 켜지고, 집안을 청소 중인 로봇청소기는 충전도크로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20일 송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초기 창업자들의 경영 애로와 규제 해소 등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스타트업, 자금·수출 지원제도 활용하세요

광주전남중기청 소통 간담회

광주·전남지역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경영자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몰라 자금조달과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송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20여개사와 간담회를 열어 경영 애로를 듣고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전남 코트라(KOTRA)지원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기술개발, 자금조달, 투자 유치, 수출·판로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

형 상담을 진행했다.

박양승 진광테크 대표는 "스타트업들이 제품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정착 사업화를 위한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최운근 영진시스템(주)대표는 "다수 업체들이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방법을 몰라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자금조달 문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다"며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경제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사(ACS) 기준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남·전북·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시군에 예산정책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